

한국선사시대 식생활 - 동물성식료

안 덕 임

국립진주박물관

머 리 말

생업경제(식생활)연구는 과거 인간들의 생활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고고학의 한 연구분야이며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동물고고학(zooarchaeology)과 고고식물학(archaeobotany)으로 분리된다. 전자는 동물성식료를 후자는 식물성식료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며 두분야의 관심은 과거에 소비하였던 음식물의 종류와 그 식료가 다루어진 방법 및 야생 동·식물의 가축화·재배과정 등을 밝히는데 있다.

과거 식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동물성식료에 관한 고고학적 정보는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실질적인 음식 잔여물(동물뼈, 조개 등), 벽화와 문헌 등의 기록된 자료,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에 관한 화학분석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식생활에 관한 민족지적인 연구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종류의 동물이 소비되었는지를 밝힌 다음, 동물유체에 관하여 형질학적인 분석·수량분석·혼적조사 및 생태학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식료로 이용된 동물이 가축인지 야생동물인지 여부, 생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동물의 종류, 주로 소비된 계절과 그 손질 방법 등을 밝힘으로서 과거의 식생활 복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 고고학 실정에 있어서 이러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산성을 띠는 우리나라의 토양

환경이 동물유체의 보존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동물유체를 연구하는 전문적인 동물고고학자의 부족을 들 수 있겠다. 앞으로의 자료축적과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선사 시대 식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성식료에 대하여 유적지에서 출토된 동물유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사유적출토 동물성식료

1. 구석기시대

한반도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은 상원 검은모루유적으로 약 60만년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대는 아직 가축사육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이며 동물성식료는 사냥을 통한 야생동물에서 얻어졌다. 그러나 사냥대상이었던 동물은 당시 기후변동에 따라서 시기별로 달라졌을 것이다. 지질연대로 제4기 홍적세(Pleistocene)에 해당하는 구석기시대 동안에는 네번의 커다란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당시 사냥대상의 동물상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구석기시대의 동물상을 말해주는 동물화석은 석회암동굴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은 북한의 동관진, 검은모루, 승리산, 청정암, 해상, 만달리, 대현동, 화천동, 용곡동동굴 등이며

남한의 두루봉, 접말용굴, 홍수굴, 상시, 금굴, 빌레못동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은 지질연대상 중부와 상부홍적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고(박희원 1983, 배기동 1989)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하부홍적세에 속하는 유적은 발견된 예가 없다.

〈중부홍적세〉: 동물화석을 포함하는 이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검은모루, 대현동, 용곡동 하부층, 금굴의 하부층, 청원두루봉 29굴, 덕천 승리산 하부층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젓소, 물소, 상원말, 큰쌍코뿔이, 큰원숭이, 넙적 큰뿔사슴, 큰사슴, 말사슴, 사향노루, 노루, 표범, 호랑이, 하이에나, 멧돼지, 큰곰, 동굴곰, 여우 등이 출토되었다.

〈상부홍적세〉: 이시기의 동물화석을 포함하는 중요한 동굴유적은 동관진, 만달리, 화천동, 해상, 승리산유적과 접말, 상시, 두루봉 홍수굴 등이다. 중부홍적세에 나타난 동물들이 계속하여 등장하며 이외에 들소, 덕천말, 산양, 털고뿔이, 물사슴, 멧토끼, 수달, 너구리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동물종은 다만 동굴 유적에서 출토된 화석에 관한 동정결과일 뿐이며 당시 동물성 식료로서 사냥된 동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화석에 관한 보고가 종분류와 사멸종에 관한 연구를 통한 유적간의 상대연대측정에 촛점이 맞추어졌던 만큼 동물 뼈에 관한 인공적인 가공여부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동물은 당시 유적지주변에서 사냥이 가능하였던 것들로서 당시의 잠재적인 동물성 식료였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뼈에 관한 상세한 흔적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신석기시대(표 1-4)

이시대의 동물화석이 발견된 대표적인 유적은 북한의 궁산리, 서포항, 농포, 범의구석유적과 남해안의 동삼동, 수가리, 상노대도, 구평리, 연대도, 송도패총 등이다. 이 시대에는 점차적으로 정착생활과 원시농경 및 가축기르기가 발달되는 시기이다. 또한 주거지를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자리잡고 조개, 물고기, 바다짐승 등을 식료로서 이용하며 대형패총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전시기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농경과 가축동물이 생업경제에서 차지하였던 비중은 아직 크지 않았으며 여전히 수렵과 채집 활동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 같다. 예를 들면 궁산리, 농포, 서포항, 범의구석과 같은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뼈 가운데 89% 이상이 야생동물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신규 1970).

신석기시대인이 잡은 동물 가운데 포유류는 약 20여종에 달한다. 이 중 사슴, 고라니, 말사슴, 노루, 사향노루, 멧돼지, 산양 등의 우제목동물, 표범, 곰 등의 맹수, 족제비, 오소리, 너구리, 여우, 늑대 등의 식육류, 청서와 같은 설치목동물, 물개, 바다사자, 바다표범, 고래, 돌고래와 같은 바다짐승이 주종을 이룬다. 이 밖에 궁산유적에서는 2마리분의 길들여진 물소뼈가 출토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김신규 1970)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동물 가운데 사슴류와 멧돼지가 많은 유적에서 보고되고 있어 이들 동물이 당시 중요한 동물성식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안지역에서는 바다짐승 사냥도 활발하였다. 바다짐승 가운데는 바다사자, 고래가 중요한 식료였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서포항유적에서는 80마리분의 바다사자뼈가 출토되었고(김신규 1970) 남해안의 동삼동, 상노대도 등에서도 고래와 바다사자와 같은 바다짐승의 출토량이 많아 바다짐승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삼동의 경우 고래와 바다사자가 사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섭 1993)

이 시대에는 육지 바다짐승사냥 이외에도 물고기·조개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궁산, 서포항, 농포, 동삼동, 수가리, 상노대도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물고기뼈에는 명태, 대구, 청어, 방어, 송어, 고등어, 가자미, 상어, 넙치(광어), 도미, 농어, 가오리, 복어, 참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굴, 홍합, 대합, 전복, 반지락, 소라, 백합, 개조개 등 수십종에 달하는 바다조개도 채집되었는데 이 가운데 굴과 홍합의 출토량이 많다.

한편 동삼동패총과 같은 유적에서는 까마귀, 매, 솔개, 황오리, 검은머리흰죽지, 검둥오리, 가마우지, 습새, 큰논병아리, 바다쇠오리, 핑 등 많은 종류의 새뺨가 출토되고 있어(Sample 1974 : 94-5) 새사냥도 활발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마우지, 검둥오리, 황오리, 큰논병아리, 바다쇠오리와 같은 새는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철새이므로 당시 이들 새사냥이 겨울에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 상노대도, 동삼동, 수가리패총에서 거북이류, 수가리에서 개구리, 동삼동에서 성계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시대에 길들여진 동물로는 개와 돼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개는 신석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서포항유적 I기에 이미 등장하고 있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미 길들여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개와 비교하여 돼지는 좀 더 늦게 길들여져서 신석기시대 후기인 서포항 4기층, 범의구석 I

문화층에서 출토되고 있다(서국태 1986 : 92). 범의 구석 I 문화층에서 출토된 돼지는 아직 멧돼지의 표징을 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멧돼지가 축화과정의 과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앞글). 한편 이 문화층에서 출토된 짐승 가운데 집돼지와 멧돼지가 각각 3.7%, 29.63%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뒷시기인 청동기시대에 가면 43.1%, 6.14%로 집돼지의 출토빈도가 높아져서(앞글 : 93) 신석기시대에는 아직 멧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점점 집돼지에의 의존도가 커감을 보여준다.

한편 수가리패총 지표층에서 소뺨가, 송도패총 교란층에서 말뺨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동물은 북한지역에서도 각기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유적에서 비로소 출토되기 시작하므로 신석기시대와 관련짓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표 1. 신석기시대 유적 출토 포유동물상

동물 \ 유적	동삼동	수가리	상노대도	구평리	산등	육지도	송도	서포항	궁산	농포	범의구석
말사슴								○		○	○
사슴(대륙·우수리)	○	○	○	○	○	○	○	○	○		○
고라니	○	○	○	○					○		
노루								○	○	○	○
사향노루										○	○
멧돼지	○	○	○	○		○	○	○	○	○	○
집돼지								○			○
소		○(지표채집)									
물소									○		
말							○(교란층)				
샅괭이(속)		○						○			
개(과)	○	○	○					○	○	○	○
늑대										○	
여우			○					○		○	
너구리	○	○						○	○	○	
수달				○				○		○	
산달								○			
오소리		○						○	○		

표 1. 계속

동물	유적										
	동삼동	수가리	상노대도	구평리	산등	육지도	송도	서포항	궁산	농포	범의구석
곰											○
큰곰		○						○			
고양이(속)	○							○			
표범								○	○		
범											○
메토끼								○			○
청서											○
바다사자	○		○					○			○
물개			○					○			○
바다표범	○							○			○
돌고래	○	○			○						
수염고래			○					○			
작은곰등어								○			
고래	○	○	○		○						○
등줄쥐			○								
집쥐			○								○

표 2. 신석기시대 유적 출토 조류

동물	유적		
	동삼동	수가리	상노대도
평	○	○	
참수리			○
까마귀	○		○
가마우지	○		○
습새	○		○
독수리	○		
솔개	○		
황오리	○		
검은머리흰죽지	○		
검둥오리	○		
농병아리	○		
바다쇠오리	○		
갈매기	○		
불명		○	

표 3. 신석기시대 유적 출토 어류

동물	유적			
	동삼동	수가리	상노대도	산등
감성돔	○	○	○	
참돔	○		○	
어름돔		○		
붉돔			○	
쥐돔				○
흑돔	○			
하스돔과			○	
알락곰치			○	
농어		○	○	
양놀래기			○	
참복과	○			
줄복		○	○	
대구	○	○		
다랭이	○			
승어	○			
색가오리과			○	
매가오리		○		
고등어속	○			
정어리	○			
상어류	○			
넙치	○			
양볼락과	○			
방어	○			

표 4. 신석기시대 유적 출토 조개류

유적 \ 동물	동삼동	수가리	상노대도	구령리	산동	북정	송도
전복	○		○		○		
말전복			○				
소라	○		○	○	○		○
눈알고둥	○	○	○	○			
애기삿갓조개			○				
진주배말			○				
큰배말			○		○		
바다방석고둥			○				
보말고둥			○	○			
올타리고둥	○		○	○			○
명주고둥			○	○			
밤고둥	○		○		○		○
두드럭배말	○		○				
총알고둥	○						
큰뺨고둥	○		○	○	○		○
침배고둥	○		○		○		
동다리							
갯고둥		○		○			
비틀이고둥				○			
수염고둥					○		
큰구슬우렁이			○	○			○
어깨뿔고둥	○		○				○
타래고둥	○						
피뿔고둥	○	○		○			○
두드럭고둥			○	○			○
대수리	○	○	○	○			
맴사리				○			○
긴뿔고둥	○						
대추고둥	○						
보리무룩	○		○		○		
고운띠무룩		○					
갈색띠매물고둥			○				○
매끈이고둥			○				
털탑고둥			○	○			
언챙이고둥					○		
꼬막		○	○	○			○
새꼬막		○		○			
피조개	○			○			
돌조개			○				

표 4. 계속

동물	유적							
	동삼동	수가리	상노대도	구령리	산등	북정	송도	
빌로드복털조개		○	○			○		
복털조개	○	○		○				
홍합	○	○	○	○	○			
굵은줄격판담치	○							
비단담치					○			
국자가리비			○					
비단가리비	○	○	○	○			○	
큰가라비	○							
밤색무늬조개		○		○				
투박조개	○				○			
국화조개					○			
재첩	○	○				○		
주름방사룩조개	○				○			
토굴	○		○	○	○		○	
굴	○	○	○	○	○	○	○	
키조개			○					
새조개			○					
굵은이랑새조개							○	
반지락	○	○	○	○			○	
개조개	○		○	○	○		○	
백합	○	○	○	○				
비너스백합								
대복			○					
가무락조개	○			○				
떡조개				○				
살조개	○						○	
왕우럭			○					
우럭				○				
동죽		○						
산우렁이		○	○				○	

3 청동기시대 (표 5-7)

이 시대에 주로 동물뼈가 출토되는 중요한 유적은 북한의 서포항, 초도, 오동, 범의구석, 입석리, 승리산유적 등이며, 남한의 고남리패총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시대에는 가축기르기가 점차 보급되어 신석기시대에 길들여진 개, 돼지가 출토되는 유적이 많아지게 되고 소뼈가 범의구석, 오동, 초도, 입석리 등에서 새로이 출토

된다. 한편 우리나라 인근인 중국 동북부지방에 위치한 망해둔유적에서 말과 양이, 양두와유적에서 닭과 같은 동물뼈가 출토되고 있어서(장호수 1992)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짐승의 가축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에도 가축에 비하여 야생동물의 출토 비율이 여전히 높아 야생동물이 계속하여 중요한 동물성 식료원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의구석에서는 야생동물이 출토된 동물종의 93.6%를 차지하며 입석리유적에서는 출토된 동물수의 85.7%가 야생동물이었다(김신규 1970).

청동기시대유적에서 발견된 야생의 포유동물에는 족제비, 산달, 수달, 검은돈, 토끼와 같은 작은동물을 비롯하여 노루, 사향노루, 고라니, 사슴, 말사슴 등의 사슴과동물과 산양,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여우, 송냥이, 곰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에 비하여 종구성이 약간 많아졌고 오소리, 수달, 너구리와 같은 털가죽짐승의 출토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앞글). 그러나 이들 동물 가운데 노루, 말사슴, 사슴, 고라니와

같은 사슴과 동물이 신석기 시대와 같이 여전히 중요한 사냥대상이었다(앞글).

청동기시대에도 물고기잡이, 조개잡이가 중요한 생업활동으로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안면도 고남리패총에서는 도미류, 농어, 가오리류, 복어류, 상어류, 가자미, 넙치 등 27여종의 물고기와 굴, 반자락, 피뿔고둥, 대수리, 우럭, 백합, 대복, 전복, 꼬막 등의 바다조개가 출토되었다(김병모·심광주 1990, 김병모·안덕임 1990). 한편 고남리패총에서는 멍, 솔개, 까마귀, 아비, 산비둘기, 오리 등의 새뻬도 출토되고 있어 당시 새사냥도 계속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기타 게, 뱀, 성게, 개구리, 거북이 등도 보고되었다.

표 5. 청동기 시대 유적 출토 포유동물상

동물	유적							
	고남리	오동	초도	서포항	범의구석	입석리	미송리	
말사슴		○	○	○	○		○	
사슴	○		○	○	○	○	○	
고라니						○	○	
노루		○	○	○	○	○	○	
사향노루	○	○	○		○			
멧돼지	○	○	○	○	○	○		
집돼지		○	○	○	○	○	○	
소		○	○		○	○		
산양			○	○	○			
삿괘이	○			○				
개(과)	○	○	○	○	○		○	
늑대				○			○	
여우	○	○	○	○				
너구리	○	○	○	○		○	○	
족제비				○				
수달		○		○	○	○		
검은담비(돈)					○			
산달				○	○			
오소리	○	○		○	○	○		
곰		○	○	○	○			
큰곰			○		○			
고양이(속)	○			○				
표범				○			○	
시라소니				○			○	
범			○		○		○	
메토끼		○		○	○	○	○	
바다사자	○			○				
물개				○				
바다표범				○				
수염고래				○				
작은곰등어				○				
취류	○	○						

표 6. 고남리패총 출토 어류

한 국 명	학 명	패 총		
		A-1	B-1	B-2
참돔	<i>Chrysophrys major</i>	+	+	+
감성돔	<i>Acanthopagrus schlegeli</i>	+	+	
타이완돔	<i>Argyrops bleekeri</i>		+	
옥돔	<i>Branchiostegus japonicus</i>	+		
황돔	<i>Taius tumifrons</i>	+		
농어	<i>Lateolabrax japonicus</i>	+	+	+
가자미과	Bothidae	+		
가오리목	Rajida	+	+	+
넙치	<i>Paralichthys olivaceus</i>	+	+	+
매가오리	<i>Holorhinus tobijei</i>	+	+	+
곱상어과	Squalidae	+	+	
까치상어(?)	<i>Triakis scyllium</i>	+	+	+
전자리상어(?)	<i>Squatina japonica</i>		+	+
참복과	Tetraodontidae	+	+	+
줄복	<i>Fagu pardalis</i>		+	
자지복	<i>Sphoeroides rubripes</i>		+	
양태	<i>Platycephalus indicus</i>	+	+	
민어	<i>Nibea imbricata</i>		+	
준치	<i>Ilisha elongata</i>		+	
보구치	<i>Argyrosomus argentatus</i>		+	
봉장어	<i>Astroconger myriaster</i>		+	
정어리	<i>Sardinia melanosticta</i>	+	+	+
멸치	<i>Engraulis japonica</i>	+	+	+
송어	<i>Mugil cephalus</i>	+		
연어과(?)	Salmonidae	+		
성대	<i>Chelidonichthys kumu</i>	+		
방어	<i>Seriola quinqueradiata</i>	+		
불명	<i>Unidentified species</i>	+	+	+

표 7. 중량에 의한 고남리패총 출토 패류 구성비(+ : 2%이하)

한국명	학명	A-1		B-1						B-2	
		2	3	4	5	6	8	11	12	2	3
굴	<i>C. gigas</i>	80.1	57.9	65.2	49.5	77.6	89.4	53.9	23.2	81.9	83.3
반지락	<i>T. philippinarum</i>	12.7	27.5	23.4	7.5	2.5	+	+	44.7	2.8	2.0
피빨고둥	<i>R. venosa</i>	5.8	11.3	4.9	24.6	7.6	3.6	4.5	6.1	2.8	5.7
대수리	<i>T. clavigera</i>	+	+	3.6	13.1	10.6	3.9	30.8		7.7	7.2
가무락조개	<i>C. sinensis</i>				+	+			18.2	+	
우럭	<i>M. arenaria oonogai</i>	+	+	+	+	+	+			+	+
백합	<i>M. lamarcki</i>	+		+	+	+		+		+	
대북	<i>G. veneriformis</i>	+			+	+			5.1	+	
어깨빨고둥	<i>O. japonica</i>	+	+	+	+	+	+	6.1		+	+
눈알고둥	<i>L. coronata coreensis</i>	+	+	+	+	+	+	+		+	+
동다리	<i>C. rhizophorarum</i>	+	+	+	+	+	+	+		2.5	+
댕가리	<i>B. cumingii</i>	+	+	+	+	+	+			+	+
전복	<i>N. discus</i>		+							+	
홍합	<i>M. coruscus</i>	+		+		+				+	
가리맛조개	<i>S. constricta</i>	+	+	+			+	+		+	+
비단고둥	<i>U. costatum</i>					+					+
꼬막	<i>T. granosa</i>								+		
대추고둥	<i>O. mustelina</i>	+								+	
밤고둥	<i>C. argyrostoma lischkei</i>				+	+				+	
키조개	<i>A. pectinata japonica</i>	+									
동죽	<i>M. veneriformis</i>									+	

(분석용 샘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외에도 비단가리비, 토굴, 피조개, 갯우렁이, 큰구슬우렁이, 점박이계란고둥, 각시수랑이 소량 검출됨.)

맺 음 말

이상에서 한국 선사시대 동물성식료에 대하여 유적지에서 출토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의 거주가 시작되며 이때부터 동물성식료를 소비하게 된다. 구석기시대에는 빙하활동에 의한 환경의 변화가 동물상에 영향을 미쳐서 당시 사냥 대상동물에 변화가 일어났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가축의 사육이 시작되고 바다나 강의 수산자원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여 해안가를 따라 대형패총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가축의 사육이 점차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하게 되나 야생동물사냥도 여전히 중요한 생업활동의 하나로 남겨진다.

참 고 문 헌

1. 김병모, 심광주, 안면도 고남리패총 2차발굴 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0.

2. 김병모, 안덕입, 안면도 고남리 패총 1차발굴 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0.
3. 김신규, 우리나라 원시유적에서 나온 포유동물상, 고고민속론문집, 2, 73-120, 1970.
선봉 서포항원시유적에서 드러난 짐승뼈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3, 13-18, 1990.
4. 박희현, 동물상과 식물상, 한국사론, 12, 91-186, 국사편찬위원회, 1983.
5. 배기동, 한반도 홍적세 환경과 구석기문화, 한국상고사학보, 2, 1-14, 1989.
6. 서국태,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6.
7. 장호수, 청동기시대 집승, 북한의 선사고고학, 3, 청동기시대와 문화, 589-91, 백산문화, 1992.
8. 조태섭, 우리나라 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동물상, 사천 구평리유적, 227-44, 단국대학교 박물관, 1993.
9. Sample L. L. 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history, *Arctic Anthropology*, 11(2) : 1-125, 1974.